

#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지정

문화재청, 민족 정체성·가치 대표하는 전통생활관습

문화재청이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한복생활'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 왔다.

### ◆가족 공동체 안녕 기원하던 매개체

근대적 산업사회가 이뤄지기 전에는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입거나 수선해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새로이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각각 '설빔'·'추석빔'·'단오빔'이라 했다. 계절이 바뀌는 때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장만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생활'은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점차 그 빈도·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반드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기간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전승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 '한복 입기'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으나 △한복 그 자체의 무형유산 특성·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문화재청이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한복 입기'가 단순 한복 착용에 대한 인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한복 제작·향유하는 문화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한복생활'로 명칭을 최종 변경하게 됐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신라의 토우·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해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뤄진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다. 우리 교유의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

형을 확립했다.

◆'한복' 용어, 1876년 개항 이후 서구문물 들어오면서 등장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서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韓服)'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신라의 토우·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해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뤄진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다. 우리 교유의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

문화재청은 향후 '한복생활' 등 공동체 종목에 대해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

# 관놀음 별별창극·소리판 무대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 27~30일 국악·판소리 공연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지리산소극장에서 <관놀음 별별창극>과 판소리 완창무대인 <소리판> 4주차 공연을 각각 선보인다.

27일 '별별창극'에는 입과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이 공연이 공연되며, 소리꾼 이승화와 트롯 전국체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신승태가 출연해 국악의 맛깔스런 무대를 선보인다.

30일 별별창극에는 아트플랫폼 동화의 '광대 리글레토'가 무대에 오르며, 베르디 오페라가 소리극으로 재탄생한 작품으로, 귀족에게 복수하려는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든 광대의 슬픈이야기! 베르디 최고의 명작 리글레토가 전통연희와 만난다.

별별창극 공연시간은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이며, 공연 장소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이다.

28일 소리 판 무대는 최영란(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지도단원) 명창의 동초제(춘향가가 7시간 동안 공연되며, 북 반주에는



아트플랫폼 동화의 '광대 리글레토'

김규형, 강길원, 유태경 명고가 함께 한다.

29일 소리 판 무대는 김금희(사단법인 소담소리아트 단장) 명창의 박초월제 최난수 바다(홍보가)가 3시간 연창되며, 북 반주에는 조용수 명고가 함께한다.

'소리 판' 해설에는 유영대(국악방송 사장)가 맡고 공연 장소는 지리산 소극장(남원시립도서관 4층)으로 관람은 7세 이상이며, 문의 및 예약은 전화(063-620-2329)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우 기자

# '사운드 포레스트 익산' 콘서트

23일 가수 적재·스텔라장 공연

익산시가 새로운 휴식을 위한 음악체험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사운드 포레스트 익산(SOUND FOREST IKSAN)'은 익산예술의전당이 기획공연 브랜드로 선보이는 콘서트 시리즈다. 여러 장르의 음악이 모인 '음악의 숲'이라는 뜻과 '휴식을 위한 소리(sound for rest)'라는 뜻이 중첩되어 있다.

2022 '사운드 포레스트 익산: 작재 X 스텔라 장 로맨틱 컬러 콘서트'가 오는 23일 오후 5시부터 110분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적재와 스텔라장이라는 두 아티스트의 색깔로 가득 채워진 가장 로맨틱한 순간을 선물한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각 아티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을 녹여낸 콘서트이다.

가수 적재는 지난 2014년 정규 1집 '한마디'로 정식 데뷔한 이후 '별 보러 가자', '나랑 같이 걸을래',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타투' 등 특유의 섬세하고 독보적인 감성과 음악성으로 탄탄한 팬덤을 쌓아 올린 싱어송라이터이다.

스텔라장은 2016년 'Colors'를 시작으로 '월급은 통장을 스킵', 'YOLO' 등 공감과 재치가



느껴지는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인정받아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직접 부르는 두 아티스트가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일 이번 공연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063-859-3254)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오는 28~29일 이틀간 '2022 문화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를 받는다.

'문화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고창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공동체를 대상으로 참여자들이 원하는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신규형(1년 미만 활동) △성장형(1년 이상 활동)으로 나뉜다. 선정된 문화공동체는 전문가 컨설팅과 회계교육 이수 후 신규형은 최대 200만원, 성장형은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공동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과 사업참여 대상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후속 지원 구조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문화공동체는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gaff1110@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내 관계망을 확장하고 문화를 나누는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장수군, 오늘 '넝쿨째 굴러온 예술마당' 공연

장수군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2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5회 공연 중 첫 번째 공연인 '넝쿨째 굴러온 예술마당' 공연을 개최한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장수한누리전당과 상주단체(예술담은나라)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장수한누리전당에서 펼쳐진다.

공연은 모든 연령대를 위한 클래식, 퓨전국악, 대중가요 명곡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연 전 사전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체크부스, 사회복지상담 부스를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공연은 장수군민이면 누구나 선착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 하며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8월 3일(수) 덕진예술회관 상주단체(타악연희원-아귀 공연), 8월 17일(수) 건반위의 채색 BY 몬드리아 공연, 9월 15일(목) 마에스트로 B·T·S vs BTS 공연, 10월 15일(토) 결혼식 그리고 음악회 공연이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이번 공연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군민들의 관람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부안군문화재단,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참여학생 모집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에서는 부안군 내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와 미술(판화) 융합형 예술프로그램인 '동화를 내 마음속에 판화(파놓아~!)'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2년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에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부안 동화농민혁명 백산 대회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역 초등학교생들에게 알리고 이를 미술(판화)로 표현함으로써 부안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애郷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되

었다.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판화를 제작하기에 앞서 부안군 문화관광해설사에 의한 부안 동화농민혁명에 대한 교육과 현장 견학 후 지역 미술작가와 함께 판화를 제작하여 전시하게 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7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예술진흥팀 담당자(070-4278-7362)에게 문의하거나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